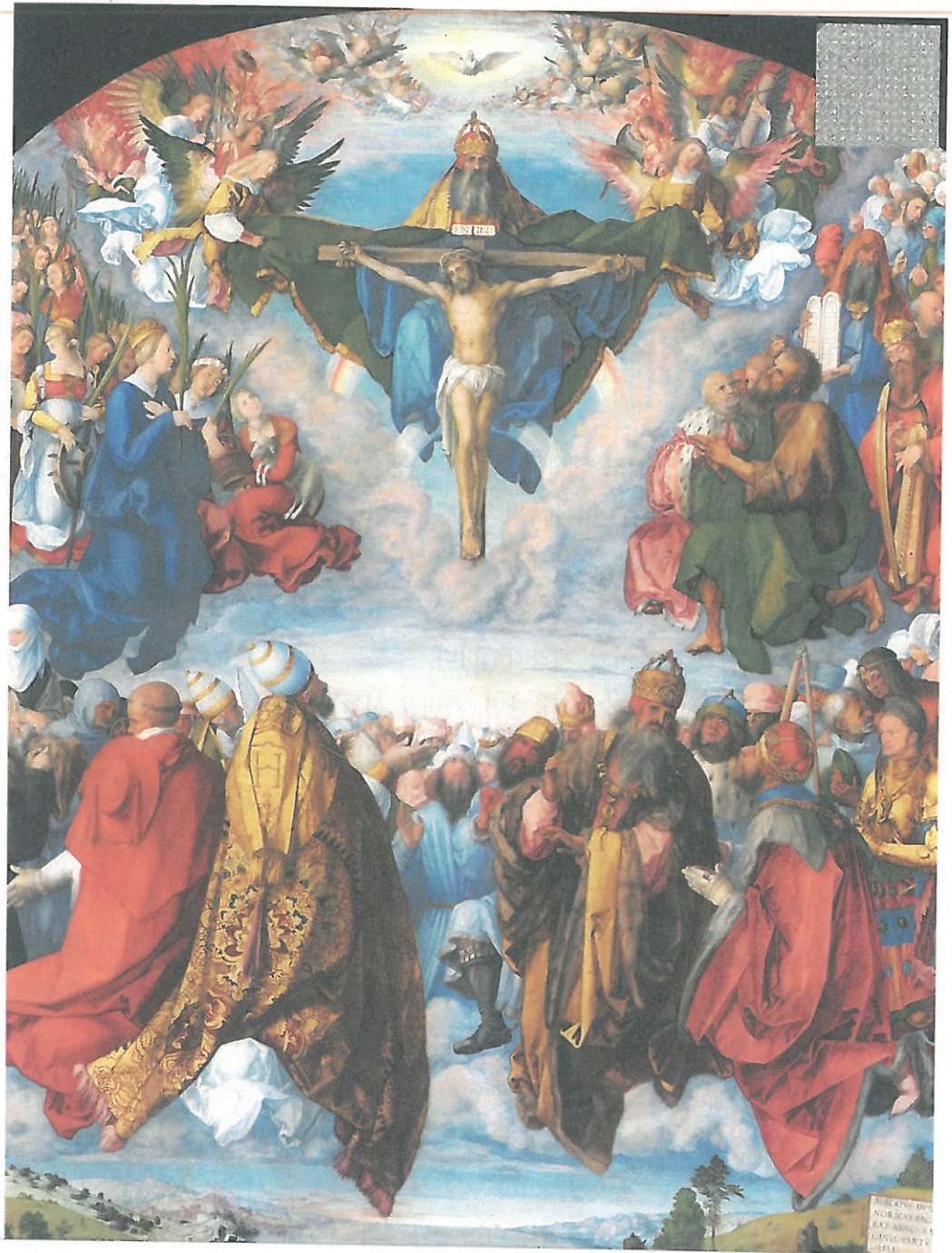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504호
2024년 5월 26일(나해)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청소년 주일)

삼위일체에 대한 경배
알브레히트 뒤러(Albrecht Dürer,
1471-1528), 1511년
패널에 유채, 135x123.4cm
빈 미술사 박물관, 오스트리아 빈



입당송 |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 신명 4,32-34.39-40

화답송 | 시편 33(32),4-5.6과 9.18-19.20과 22(◎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 로마 8,14-17

복음환호송 |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 마태 28,16-20

영성체송 |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류지인 아고보 신부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하느님을 상속한 사람

수도원의 종소리가 울리고 형제들이 정해진 장소에 모입니다. 몸이 따르는 곳에는 마음까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나 일치된 지향으로 부르심을 이루는 일은 언제나 도전입니다. 하루는 발에 거름을 주어 두둑하게 고랑을 세우는데 그 모습부터가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긴 팔에 옷깃까지 걸치고 중무장을 한 반면, 가벼운 셔츠 한 장에 작업복 차림, 양말까지 벗어 던진 형제도 있으니 유별해도 이렇게 다를 수는 없습니다. 가지각색의 마음에서 출발한 발같이 작업인 만큼 결실에서 드러난 모습도 달랐습니다. 성심껏 거름을 섞은 곳은 새싹부터 열매까지 틈 실했지만, 영양분 없는 흙 두둑의 작물들은 수확이 영 망한 수준입니다. 마음이 빠진 자리에 소홀함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빈약한 밭고랑에는 결실도 하나 없이 한 계절의 수고로움만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제자 열한 명이 “갈릴래야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 부하신 산으로”(마태 28,16)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하나로 묶어 움직이고 있는 힘은 스승님의 말씀에서 비롯 됩니다. 스승님의 분부를 받드는 제자들이었으나 마음에서 의구심을 완벽하게 떨쳐내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동일한 식탁에 앉아 같은 빵과 잔을 나누었던 유다 이스카 리옷을 잃은 쓰라린 체험을 했음에도 완전한 믿음에 이르는 길은 소원합니다. 갈라진 마음은 부르심을 따르는 사 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알리는데, 부활하신 주

님을 뵈옵는 감격스런 장면에도 그 정체는 이렇게 부각됩 니다. “더러는 의심하였다.”(마태 28,17) 미세한 틈바구니에 도 동지를 트는 의심은 하느님 신비에 대한 수용과 결실 을 가로막는 완고함으로 귀결됩니다.

무언가를 확실히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는 마음을 ‘의 심’이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신뢰하려는 결심을 ‘확신’이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 비로소 맡겨진 사명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삼위일체 하느님 신비를 세상 끝까지 선포하여 하나의 신앙고백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파견에 이어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세 분의 위격이 일체를 이룬 한 분이신 하느님 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로마 8,16) 증언해 주실 것 입니다. 불신으로 점철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더 붙어 공동 상속자”(로마 8,17)가 되는 길은 그분과 함께 당하 는 고난 속에서 영광을 찾는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신앙인은 ‘오늘 다른 하느님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새기 며 그분의 규정과 계명들을 지키는’(신명 4,39-40 참조) 결심 으로 힘차게 오른손을 들어 이마와 가슴과 어깨를 차례로 짚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믿음 의 백성들 앞에서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선포되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한 경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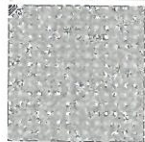
알브레히트 뒤러의 <삼위일체에 대한 경배>라는 성화는 우리에게 삼위일체의 위대함이 당신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내어주는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사랑은 결국 우리에게 천상의 기쁨으로 되돌아올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성화를 바라보며 의심을 버리고 삼위의 사랑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성화 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폼페이 성모님을 아시나요



박지현 요셉피나 | 방송작가 겸 수필가

호수의 도시, 이태리 코모에 도착했습니다. 큰딸과 함께 떠난 이태리 여행, 이를 후엔 한국으로 귀국합니다. 코모 역에서 바라본 호수가 아름답습니다. 다른 날 같으면 너무 좋다며 호들갑이었을 텐데, 지금은 그럴 맘이 생기지 않습니다. 밀라노에서부터 기관지염이 도져서 한기가 느껴지고 몸살 증상까지 겹친 겁니다. 면역이 약한 사람이 젊은 딸을 따라다니며 자유 여행을 하려니 그럴 만도 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내 상태가 힘들면 다 소용없다는 결론에 봉착하자 심란했습니다. 예전 아팠을 때의 트라우마가 떠올라서 두려웠습니다. 기침이 멎지 않으니 딸도 밤을 지새우며,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제 등을 쓰다듬습니다. 엄마와 추억을 쌓겠다고 떠나온 여행인데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는 묵주를 들고 힘없이 성모님만 불렀습니다.

이튿날 딸이 호수 맞은편 산꼭대기에 있는 브루나테 동네를 올라가겠다고, 푸니쿨라를 타러 나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태산일 것 같은 딸을 위해 묵주기도를 바쳤습니다. 그 시각, 딸은 산 정상에서 한적하고 고요한 호수를 내려다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을 겁니다. 딸은 인적이 드문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는데, 작고 예쁜 집이 나와서 셀카를 찍었습니다. 집안이 궁금해서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는데 세상에나, 커다란 알로 엮은 묵주가 제대 뒤 벽에 걸려있던 겁니다. 의자 몇 개 놓인 작은 경당이었는데, 성모님께서 아기 예수님을 안은 성화가 모셔진 곳이었습니다. 그 액자 속 주인공은 바로 폼페이 성모님이었습니다. 딸이 뭔가 익숙해서 계속 쳐다보니, 54일 묵주기도 책 푸른색 표지 가운데에 그려진 성모자 성화와 같더라고요. 폼페이에 발현하시어 54일 묵주기도를 바치라고 안내한 성모님이신 겁니다.

딸은 오묘한 이끌림에 감동하면서 엄마를 위해 환희

의 신비 5단을 바쳤다고 합니다. '왜 하필 지금 엄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 모레 아침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의탁일까? 경고일까?' 그렇게 막 머리를 굴리는 순간, '엄마의 병세도 그렇고, 또 내일은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는데, 성모님께서 묵주기도라는 무기를 내게 주시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뜻일지도 몰라.' 하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저는 코모 성모병원 응급실에 가서 꼬박 7시간을 기다리며 엑스레이와 피검사 등 진료를 받았습니다. 딸은 땀별 아래서 기다리며 성모님이 주여주신 무기(묵주기도)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이후에도 귀국이 늦어지고 비행기 표를 구하지 못하는 등 놀랄 일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작은 경당의 폼페이 성모님 성화를 떠올리며, '왜 하는 것마다 틀어질까. 지금은 다 내려놓고 기도 먼저 하라고 그러시나.'라고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로써 17일간의 모녀 여행은, 마지막 순례지인 코모에서 새로운 이름의 '폼페이 성모님'을 만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5월 성모 성월도 어느새 끝자락에 와있습니다.

한 컷
교리

성모님에 관한 4대 교리는, 성모님께서

평생 동정이시며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원죄에 물들지 않으셨으며
선종 후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식



임여주 아네스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이로운 점은 그들이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그 어느 때보다 부지런히 성장하지요. 성장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나의 외모가 달라지고, 나의 생각도 달라집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지? 왜 입고 싶은 대로 입으면 안 되지? 왜 아침밥을 먹어야 하지?’ 부모님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자녀 입장에서는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고, 자녀 입장에서 당연한 것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큰일 날 일이 됩니다. 이런 불협화음이 늘어날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해결의 기미는 영영 보이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미국의 작가 엘리자베스 아체베도가 쓴 운문 형식의 청소년 소설 《시인 X》에서 주인공 시오마라는 어머니와 모든 면에서 부딪칩니다. 시오마라의 어머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1세대 이민자로, 이국땅에 자리 잡고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온갖 꾀은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언제 어디서든 투사가 되어 싸울 수 있는 어머니를 어린 시오마라는 존경했습니다. 엄마는 시오마라의 영웅이었고, 시오마라는 엄마의 자랑이자 살아갈 힘을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시오마라가 사춘기를 지나며 많은 것이 변합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어머니는 수녀님이 되고 싶었던 자신의 꿈을 딸이 대신 이루어주기 바라지

만, 청소년이 된 시오마라에게 가톨릭 교리는 여성에게 기다리고 복종하라고만 말하는 억압적인 종교로 느껴집니다. 보수적인 어머니는 딸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려 하고, 그럴수록 시오마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누구보다 소중한 나의 어린 딸을 세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딸에게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억지로라도 끌고 간다면 결국 딸이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으셨을 겁니다. 단지, 그것이 시오마라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지요.

시오마라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머니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릅니다. 당연합니다. 둘은 서로 다른 사람이니깐요. 서로의 문화가 다르고 시대가 다르며 경험해 오고 경험하게 될 일이 다릅니다. 딸을 위해 인생 계획을 미리 그려놓고 그 안에 아이를 맞추려고 하는 대신, 딸이 맞이하게 될 자기만의 인생을 잘 일구어갈 수 있게 뒤에서 응원해 주는 것이 바로 시오마라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이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며, 때로는 서로의 마음에 생채기도 내어가며, 조금씩 서로가 바라는 사랑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녀와 부모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며 각자의 인생을 더 힘차게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감 (靈感, inspiration) (성령론)



전인길 요한보스코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천재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면 이들의 영감은 어디서 오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바로크 미술의 거장 카라바조(1571-1610)는 작품의 영감을 ‘보통 사람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는 사람들을 그린 〈마태오의 소명〉이라는 그림을 보면 16세기 로마의 한 선술집에 있던 사람들이 그 모델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침수〉라는 그림에는 폭행, 탈옥에 연루되었던 현재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담아 놓기도 했습니다.

흔히 예술가들에게 창작 활동의 계기가 되는 동인이나 자극을 ‘영감’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래서 영감이란 말을 들으면 작가나 음악가들이 펜 하나를 들고 영감이 안 떠올라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되지요. 하지만 이러한 영감은 창작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는 모든 자극과 동력이 바로 영감이니까요.

교회 안에서 영감은 그리스어 ‘θεόπνευστος’(Theopneustos)’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하느님’을 뜻하는 ‘theós’와 ‘숨’을 의미하는 ‘pnéō’를 조합하여 ‘하느님께서 숨결을 불어 넣음’이라고 정의합니다. 특히, 성경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고 전합니다. 사실, 성경을 쓰게 한 이 영감이 무엇이었는지 자세한 설명은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영감은 하느님으로부터 기원했고, 그 관계 안에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성경

의 다양한 문학 유형이 탄생했고, 이 다양성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하고, 파라클레토스 영을 통해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경에서는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표현하였고, 교부들은 성화로 이끄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영감은 이처럼 스스로에게서 얻어지는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확실한 감도(感導)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언제, 어디서 영감을 받을까요? 신앙인이 영감을 받는 시간과 장소는 바로 기도와 성찬례가 거행되는 곳과 때입니다. 분심과 깨어 있음을 오가는 중에도 우리는 줄곧 마음을 모으고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결심을 합니다.

카라바조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관람객들이 그저 감상에서 끝나길 바라지 않고, 그림에 묘사된 상황에 직접 참여하기를 바랐습니다. 소탈한 일상과 사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계시현장은 말씀의 기록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것 역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12쪽) 우리 삶의 중요한 원천을 얻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알아듣는 장소에 스스로를 옮겨 놓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도움으로 영감을 얻어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감은 언제나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병자성사를 받으면 병이 낫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 병이 낫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먼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만약 병원에서 의사가 완치 판정을 내릴 때 기준으로 삼는 것처럼 증상의 개선을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 삶에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여기, 똑같이 암에 걸린 두 사람이 있습니다. 메리라는 이름의 한 여성은 결혼하고 매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중, 어느 날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절제술을 받아야만 했고, 육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도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암 치료 과정에서 이 자매를 특히 힘들게 했던 것은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사사건건 수술비가 많이 든다며 불평을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아니냐며 이의를 제기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서서히 남편의 삶에서 자신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에게 암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자매의 삶은 무너졌습니다. 암의 발병과 치료 이후에 남은 것은 파탄 난 가족 관계와 지리한 이혼 소송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란세스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청소년기부터 가출하고 집 밖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인과 비슷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돕는 시청의 자원봉사 일에 참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예기치 않게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프란세스는 오히려 그날부터 자기 삶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신을 잊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들도 병실에 찾아와 회복을 기원하며 벽 가득히 응원의 쪽지를 붙이고 갔고, 이 과정을 통해 공동체에 받아들여졌다는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오랫동안 거리를 뒀던 가족과도 화해할 수 있었고, 매우 평화로운 죽음을

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헬스케어영성》 치료와 치유, 박준양 신부, 2020년 8월 18일 자 판뉴스 참조)

위의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육체적인 병의 치료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육적인 차원의 고통을 넘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나 자신의 나약함을 마주해야 하며, 때로는 죽음의 공포와 맞서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하느님께서 나를 병중에 버려둔 것만 같은 번민으로 몸부림쳐야 할 수 있습니다. 병자성사는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하느님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병자성사의 근본적인 은총은 중병이나 노쇠 상태의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데에 필요한 위로와 평화와 용기의 은총이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20항)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치료는 병원이 맡고, 영적인 치료는 병자성사가 맡는다는 식의 구분은 옳지 않습니다. 의술 또한 하느님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영과 육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힘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도움은 병자들의 영혼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지만,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 육체도 치유한다.”(《가톨릭교회 교리서》, 1520항)는 교회의 가르침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신다면’이라는 문구는 많은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사실 바오로 사도도 육체적인 고통에서 벗어나길 하느님께 청했으나, “너는 이미 내 은총을 넉넉히 받았다.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병자성사의 궁극적인 목표가 육체의 치료에 있지만은 않다는 것을 되새겨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병자성사를 통해 위로를 얻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 일치하여 동참할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욕구를 품다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홍보국장

심리학만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심리학에서 이야기 하는 ‘욕구’의 개념이 있습니다. ‘욕구’라는 단어를 들 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내 안에 욕구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실까요?

우리말 사전에는 욕구를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라고 풀이합니다만, 영어에서는 욕구를 ‘Need(s)’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말뜻 그대로, ‘무언가를 필요로 하는 것’, ‘필요성’입니다. 우리 몸이 든 마음이든, 살아가기 위해 무언가를 찾게 만드는 것 이 바로 욕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무언가 를 찾게 하는 욕구가 없다면 살아갈 수 없다는 말도 가 능하지 않을까요?

가장 쉽게, 생리적 욕구 중 하나인 식욕을 예로 들어 볼까요? 하루 종일 굶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식욕이 안 생기는 거죠. 이틀, 사흘을 굶어도 식욕이 안 생겨서 계속 밥을 안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생명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욕구인 성취욕도 마 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성취욕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지만, 성취 욕구 자체가 전혀 없다면 무언가를 하고픈 마음도 안 생기지 않을까요? 의욕이 없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죠.

사실, ‘욕구’라는 것이 썩 반갑지는 않은 대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식욕뿐만 아니라 성욕, 수면 욕, 과식욕, 인정 욕구, 지배 욕구, 의존 욕구 등. 이러한 욕구가 많아서 편하고 즐겁기보다 불편하고 고민

스럽고 때로는 죄책감까지 든다는 것을 자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구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혹은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무언가를 바라는 움직임이라면, 욕구를 마냥 불편해하기보다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금욕’이라는 가치가 중시되면서 욕구를 영성 생활과 반대되는 것, 내 안에서 최대한 억제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인식해 온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참된 영성 생활은 인간의 ‘육체성’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지향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육신을 지닌 존재이며, 따라서 육신의 조건과 한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불편함과 거부감이라는 자동적인 선입견을 내려놓고 욕구를 가만히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 안에 이런 욕구가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거죠. 내 안에 없으면 좋을 대상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품고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욕구를 바라보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욕구의 정화와 성숙이 시작됩니다.

“정화와 성숙은 에로스를 거부하거나 ‘독살’하기보다는 에로스를 치유하고 그 진정한 위대함을 회복시켜 줍니다.”(베네딕토 16세,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5항)

상단 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5월 26일)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 주일' 담화문은 서울주교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알림마당-교회발표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교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결과(2024년 5월 7일)

- 1 주교회의 민족화해교육특별위원회 총무로 강주석 베드로 신부(의정부 교구, 2002년 사제 수품)를 재임명함.
- 2 교황청 복음화부에서 2024년 4월 18일 자 교령(Prot. N. 1679/24)으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관리국장 정용진 요셉 신부를 교황청 전교기구 한국지부장(임기 5년, 2024년 4월 18일~2029년 4월 17일)으로 임명함.
- 3 세계주교신노드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2024년 10월 2일~27일) 준비를 위하여 제1회기의 결산인 <종합 보고서>(Synthesis Report)에 대한 한국 교구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리한 '한국 교회 종합 의견서'(한국 가톨릭사목연구소 작성)를 2024년 5월 15일까지 주교대의원회의의 사무처에 제출하기로 함. 한편, 제16차 정기총회 제2회기 준비를 위한 '본

당 사제 국제 모임'(2024년 4월 28일(주일)~5월 2일(목), 로마)에 한국 교회에서는 김중수 신부(서울대교구 잠실7동 본당 주임), 노우재 미카엘 신부(부산교구 서동 본당 주임), 박용욱 미카엘 신부(대구대교구 사목연구소장), 김영식 루카 신부(서울대교구 행운동 본당 주임), 최문석 안드레아 신부(청주교구 선교 사목국장), 박찬홍 가브리엘 신부(수원교구 은행동 본당 주임)가 참석함.

- 4 2025년 회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교황청 복음화부에서 펴낸 2024년 기도의 해 시리즈(Appunti sulla Preghiera: 기도에 관한 노트) 여덟 권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출판하기로 함.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3년 6월 1일 이치열 안토니오 신부(29세)
- 1984년 5월 27일 이선표 요셉 신부(37세)
- 1993년 5월 29일 김창석 타대오 신부(67세)
- 2005년 5월 27일 이봉우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1세)

교구청 알림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동행 장애인 이동권
지향: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때, 곳: 5월30일(목) 19시, 주교좌 명동대성당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노동사목위원회 / 문의: 02)927-2721

2024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루카 복음의 평화: '죄로부터의 자유'
때: 6월26일(수)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박진수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접수: 5월14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신청자 400명) /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환경사목위원회

1) 2024년 주교회의 사회교류위원회 산하위원회 공동심포지엄
주제: 기후위기 시대, 노후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때: 6월4일(화) 10시30분~16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주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문의: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02)460-7622 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2) 2024년 본당 사목위원 생태교육
대상: 본당 사목위원, 관심 있는 일반 신자
주제: 특별 사목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 -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때, 곳: 6월5일(수) 19시~2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강사: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이승현 신부(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장)
신청: 5월27일(월)까지 각 본당 사무실로 교육 신청
문의: 02)727-2283, 2278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향심기도 월피정 / 문의: 010-4565-8898

대상: 소개강의 이수자 / 지도: 이승구 신부
곳: 영성센터 B201호(구 계성여고) / 회비: 1만원

직장인	6월2일(일) 13시30분~16시30분
일반인	6월3일(월) 13시30분~16시30분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전례미술연구소 5주년 조각초전: 전관
전시일정: 5월22일(수)~30일(목)

2024 유배 후 예언서 특강

대상: 누구나(회비 없음, 성경 지참) / 강: 조창수 신부
내용: 유배 이후 예언서(오바, 예제, 제2이사, 제3이사, 하가, 즈카, 말라, 요엘)
때, 곳: 6월6일(목) 13시~17시, 가톨릭회관 3층
문의: 010-8889-5425(문자) 성경통독 아카데미

2024년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 교육

주제: 자녀에게 신앙이여주기
때: 6월28일~7월19일 매주(금) 19시30분~21시30분(4주)
주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 문의: 02)744-0840
강사: 조재연 신부, 이세라 연구원, 천진아 연구원
회비: 4만원 / 접수: 6월23일까지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2024년 영성심리아카데미 / 문의: 02)727-2126
교육명: 기도를 시로 쓰기, 영적글쓰기 등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교육신청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개인심리상담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등 성인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문자 가능):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해설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도보순례 접수 안내

신청: 5월27일(월)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검색창: 순교자현양위원회) 선착순 접수 / 문의: 02)2269-0413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일시	코스
6월1일(토) 오전 9시	3코스 일치의 길(3-2코스) (노고산성지~삼성산성지)
6월4일(화) 오전 9시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6월18일(화) 오전 9시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종림동약현성당)
6월26일(수) 오후 6시30분	저녁애순례길(성곽길 코스) 해회동성당,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낙산성곽길, 평화문 성지(오후 9시 해산)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미사

때, 곳: 5월26일(일) 14시, 명동대성당 대성전
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제19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6월3일(월)~7월19일(금) / cbckcee@cbck.kr
문의: 02)460-7622 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2024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성음악 직무자 세미나

대상: 지휘자, 반주자 및 관심있는 모든 교우
때: 7월13일~8월17일 중 매주(토)
등록: 6월10일(월)~28일(금)까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곳: 최양업홀(종로동) / 문의: 02)393-2213~5

가톨릭 영유아(만5세 미만) 부모 교육

주제: 우리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미사
강사: 박중수 신부(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부국장)
때, 곳: 6월12일(수) 오전 10시~12시30분, 영성센터202호(구 계성여고) & 온라인교육(ZOOM)-양방향·동시 진행
신청: 5월27일(월) 10시~6월5일(수) 16시
유아부 홈페이지(www.catholicinfant.or.kr) 접수
주최: 02)727-2115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유아부

민족화해위원회

1) 1420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2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분당': 덕원자치수도원구 덕원 본당 /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때, 곳: 5월31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 문의: 02)727-2415

용문청소년수련장 여름캠프 봉사자 모집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산하 용문수련장에서는 기후위기와 쓰레기문제에 대한 관찰, 판단, 실천을 내용으로 여름캠프를 진행합니다 / 캠프 전반의 진행 보조 및 세팅, 물놀이 안전관리 등 원활한 행사진행을 도와주실 가톨릭 청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때: 1차 7월31일~8월3일, 2차 8월4일~7일, 3차 8월8일~11일 / 3박 4일간 숙식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시 용문역 ↔ 수련장 픽업
문의: 010-3969-6422(6월17일까지 지원마감)

인준단체 알림

모임

수도승 영성을 통해 배우는 영적지혜

때, 곳: 1차 6월19일(수) 15시~20일(목) 13시·2차 7월3일(수)~4일(목), 왜관 수도원 내 피정의 집(주최)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재)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 회비: 8만원
문의: 010-6791-0071 (문자)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지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주제: 예수님, 빛나는 오상의 신비는 무엇인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회비: 1만원
때, 곳: 매일 둘째주(토) 6월8일 14시~18시, 구산성지
찬양: 고영민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지혜의 샘 6월 피정 프로그램

곳: 지혜의샘(부천시 경인로 61-1) 5층 / 010-3248-9705
1) 예수 성심 성월 피정: 6월5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박현민 신부, 이용권 신부, 한영임 회장
2) 일일 치유 피정: 6월12일(수) 10시~17시30분
강사: 마진우 신부, 김재덕 신부, 한영임 회장
3) 내적 치유 피정: 6월17일(월) 10시~17시30분
강사: 표중관 신부, 한영임 회장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4년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자연순례 6월21일~23일·9월2일~4일·9월7일~9일·9월11일~14일(추)·9월21일~23일·9월26일~28일·10월1일~3일, 제주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6월16일~19일·7월1일~4일, 우도해변 포함 7월12일~14일·7월20일~22일·7월25일~28일 / 문의(접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30분~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28일 이상기 회장 6월4일 박현민 신부

예수회 침묵 피정·정기강좌(이나시오 영성연구소)

1)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 피정
때: 7월17일(수)~21일(일)·7월26일(금)~30일(화)
곳: 예수회센터 / 문의(접수): 02)3276-7794
이메일: ciskorprov@gmail.com
2)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무료 정기강좌
때, 곳: 14시, 예수회센터 성당 / 문의(접수): 02)3276-7799
6월13일(목)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의 꿈과 환시 | 홍기영 교수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자연 피정
생태 순례 6월22일~24일, 7월19일~21일, 9월1일~3일
여름특별피정 7월25일~28일, 8월2일~5일, 8월8일(우도 자유 일정 포함)~10일, 8월14일~17일, 8월21일~23일
추자도 성지순례 6월15일~18일, 9월7일~10일

작은예수수녀회 특별기도 신청

때: 6월1일~30일 / 문의: 010-8867-3217 담당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묵주기도, 성체조배
때, 곳: 6월1일(토) 15시~18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 피정

강사: 김완식, 아란 제노비파, 황인숙
때: 6월7일(금) 18시~8일(토) 17시
곳: 청주 초정성령회관 / 진행: 고영민(음악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27차 6월14일(금)~22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28차 7월19일(금)~27일(토)
제129차 8월9일(금)~17일(토)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6월14일(금)~16일(일) 강한수 신부(의정부교구)
7월19일(금)~21일(일) 안소근 수녀(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8월16일(금)~18일(일) 조규만 주교(원주교구)
9월20일(금)~22일(일) 남규민 신부(원주교구)

소록도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지리산 피아골 피정	7월19일~20일, 9월6일~7일
국내 성지순례	안동·마산 6월27일~29일
한국 수도원 순례	10월9일~12일
홍성남 신부	아키타 9월2일~6일
성지순례	이브스키 10월28일~11월1일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7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6월21일(금)~23일(일), 8월16일(금)~18일(일)
다네이영성수련 피정	8월22일(목)~25일(일), 10월25일(금)~27일(일)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 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6시~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후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교육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말씀: 문 루치아 수녀(노들담 수녀회)
주제: 구체적 실현 '생태와 희망 2'
때, 곳: 6월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미리내 성령세미나

지도: 박현민, 한연흠, 노희철,
이관배 신부 외 / 인원: 선착순 50명
때: 8월9일(금)~11일(일) 2박3일
곳: 묵상의 집(미리내 성지 내)
문의: 010) 4416-6445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물·묵주 조각 기초에서 전문까지(가톨릭목공예)

카페: cafe.naver.com/cmc04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장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거룩한 독서·수도자와 함께하는 주일복음묵상

때, 곳: 수요일·목요일·목요일·토요일, 성분도 은혜의 뜰(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녀회·주최) / 02)318-2425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 010-2252-2974 강신옥
때, 곳: (금) 10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거리

가톨릭 성교육·한국틴스타 워크숍

때, 곳: 6월22일·29일·7월6일·13일 매주(토) 9시30분~17시, 명동 영성센터 / 문의: 010-6651-2359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접수: www.teenstar.or.kr / 회비: 18만원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2024년 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27일(월)~6월7일(금)·전형일 6월22일(토) / 홈페이지: http://gsot.sogang.ac.kr
문의: 02)705-8668 / 영성·철학상담: 철학을 중심으로 신학, 사회복지학 세 전공의 협동과정임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 / 영성), 가톨릭사회복지학·박사통합 학(실천·정책·행정), 영성·철학상담

제24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더즈니랜드, 실리컨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모집

재속 맨발 가르멜회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회원 모집

대상: 만 55세 이하 견진성사 받은 분
첫모임: 6월10일(월) / 문의: 010-9836-8998

아퀴나스 합창단 단원 모집

아퀴나스 합창단(67년 창단 / 담당: 최호영 신부)이
헨델의 오라토리오 '이집트의 이스라엘인'을 함께
할(가을) 3·40대 새단원(가파트 약간명)을 찾습니다
오디션: 자유곡(악보 지참) / 010-8000-3194 (문자) 총무

명동대성당 가톨릭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만 18세~만 40세 남녀 가톨릭 신자
활동: (일) 12시 교중 미사 및 대축일 미사
오디션: 6월15일(토)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3층
6월13일(목)까지 이메일 접수(명동성당 홈페이지
(PC버전) 단체 모집) / 문의: 010-3211-5195 (문자)

트리니타스 여성합창단원 모집

그레고리오성가, 라틴어미사곡, 전통전례성가에
관심있으신 55세 이하 여성(전공자·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9월28일 라인베르그 미사곡 전곡 연주 예정
때: (목) 10시30분~12시30분
'다함께성가를TV' 이호중 교수 지휘
곳: 시스미나 음악원(신촌) / 010-2303-9143

2024년 제12기 청년해외봉사단 모집

내용: 집수리 및 교육, 후원봉사 활동
때: 7월13일(밤 출발)~21일(오전 도착) 8박9일
곳: 필리핀 바그나 / 대상: 선착순 12명(한국 청년)
제주항공 일정 참조 / 회비: 항공료(본인 부담)
5월30일까지 이메일(goons@hanmail.net) 접수
문의: 02)335-3332 사무국(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미사

오기선요셉장학회 월례미사

집전: 오태순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5월30일(목) 오후 3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5월31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첫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내용: 켈기도, 미사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6월1일(토) 9시30분~12시, 가톨릭회관 3층

5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5월29일(수) 오전 10시30분, 가톨릭회관
205-2호 /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 미사

집전: 구요비 주교(주례), 염수정 추기경 외 서울대교
구 사제단 / 02)3147-2402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때: 5월29일(수) 오전 10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B3 콘솔레이션홀)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5월2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권순형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정영진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서울고속버스터미널(준)성당 미사 / 문의: 02)535-6604

곳: 서울 고속터미널 경부선 10층(옥상공원 남산방향)

(화~금)	12시	(일)	11시·17시·21시
(토)	13시30분(토요 주일 미사)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때: 5월31일(금) 11시30분, 전철 2·6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성음악미사와 작은 음악회

무반주 다성음악 전문 무지카사크라서울 합창
단과 함께하는 성음악미사와 작은 음악회
때: 5월31일(금) 19시30분, 목동성당 대성전
지휘: 신기호 신부 / 문의: 010-9464-0680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가톨릭여성연합회 5월 정기월례회

미사·특강: 안병철 신부(성사 전담 사제)
때: 5월28일(화) 10시30분, 명동대성당 문화
관 2층 소성당 / 문의: 02)778-7543

미래사목연구소 제10차 학술 발표회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때: 6월1일(토) 13시30분, 인천교구청 이안나홀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주 1회)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간의 갈등, 행동문제, 대인기피

전진상 영성센터

곳: 명동 /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영성심리 독서모임	6월13일 매주(목) 10시~13시(7주)
삼위일체 사랑을 나누는	6월20일(목) 10시~13시
불완전한 우리(영성 특강)	강사: 최지원 수녀
전문	가족치료, 개인, 부부, 모래놀이치료, 종합심
심리상담	리검사·심리정서(불안·우울·분노·공황장애)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정신적·영적인 어려움
으로 전문적인 심리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익산 성클라라봉쇄수도원은 재건축이 불가피
하여 수도원을 철거했고 곧 공사가 시작됩니다
도움을 겸손되어 청합니다 / 문의: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제)천주교유지재단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분양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제27주년 라파엘 창립기념 콘서트

때: 5월26일(일) 14시~17시, 명동성당(중구 명동길
74) 성모동산 성모상 앞 /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등록을 부탁 드립니다
공연: 라파엘 홍보대사 하림 외 다수
사전등록: http://bit.ly/4aaUZfU
문의: 02)744-7595(raphaelnnum@naver.com)
주최: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사별, 이별, 우울, 영성상담
심리학 박사 신부 직접 상담 / 문의: 010-9146-7654

직원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 직원모집

분야: 교무과 계약직 0명(3개월 수습기간)
근무: 주5일 40시간 / 문의(접수): 이메일(ccige@catholic.or.kr)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 사본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모집분야: 편집·판매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공지
사항 반드시 참조 / 이메일(hr1886@catholicbook.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미리내 천주 성삼 성직 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본원	010-5195-3217 이 안젤로 신부(성소부)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매월 둘째주(일) / 시간 상의	수녀원(서울)	010-5604-1882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 사랑의 말회	6월15일(토) 14시~17시	수녀원(경기도 군포)	010-4889-1830
천주교서울교구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10-2749-4596, 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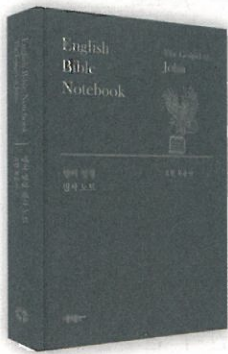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마태 5,7)

신간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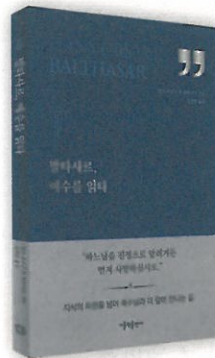


영어 성경 필사 노트 - 요한 복음서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엮음 | 2만원

성경 필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매일 한 장씩의 말씀 필사와
영어 공부를 한 번에



발타사르, 예수를 읽다

한스 우르스 폰 발타사르 지음 | 1만6천원

20세기 대표 신학자가 말하는
성경 속 예수님

지식의 차원을 넘어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는 길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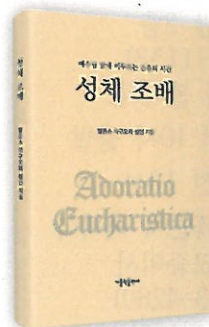


이름 없는 순례자

최익철, 강태용 옮김 | 1만8천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직접 추천한
그리스도교 고전

영적 깨달음을 구하는 순례자에게
배우는 신앙의 자세



성체 조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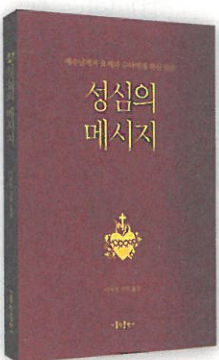
알폰소 리구오리 성인 지음 | 1만3천원

매일 15분,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다가가는 시간

주님 곁에 머무르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요한 기도서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예수 성심 성월 추천 도서



성심의 메시지

이재현 옮김 | 1만2천원

예수 성심회의 요세파 수녀에게
친히 남기신 예수님의 말씀

근심 중에 예수 성심께 의탁할 때
얻을 수 있는 크나큰 위로



프란치스코 교황이 초대하는 이달의 묵상: 예수 성심

프란치스코 교황 지음 | 8천8백원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하는
예수 성심을 따르는 기쁨

예수님의 자비를 깨닫는
한 달 묵상





제2시대문 · 마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회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마포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부주임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안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청진하십시오"

◎ 본당 소속 단체 홍보 행사 종료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신입 단원 및 단체 봉사자 모집을 위해 홍보에 참여해주신 각 단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단체 활성화를 위해 홍보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부탁드립니다.

◎ 예비신자를 초대합니다.

모집기간 : ~6월 23일(주일)
추가모집 : 6월 23일(주일)~7월 21일(주일)
대상 : 예비신자 · 외딴교우 · 첫영성체준비자
교리시간 : 주일반 오전 9시~10시 / 304호
수요반 오후 7시~8시 / 304호
※ 예비자 인도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남성총구역 족구대회

일시 : 5월 26일(주일) 오후 2시~오후 5시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신관 2층
문의 : 남성총구역장 (010-4913-1158)
※ 많은 형제님들의 참여를 희망해 봅니다.

◎ 병자영성체 : 5월 31일(금) 오전 10시 출발

◎ 성모신심미사 : 6월 1일(토) 오전 10시

◎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축복식·어린이 축복식

일시 : 6월 2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문의 : 베로니카 분과장 (010-3603-4280)
※ 축복식은 매 교중미사마다 가능합니다.

◎ 6월 6일(목)은 10시미사가 없습니다.

사무실 휴무입니다.

◎ 6월 7일(금)은 사제성화의 날입니다.

신부님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교구행사로 6월 7일(금) 오전 10시미사는 없습니다.

◎ 연성회(70대) 야외행사

일시 : 6월 8일(토) / 성당에서 오전 9시에 출발
장소 : 한탄강, 주상절리
문의 : 김무영 요셉 총무 (010-3891-4300)
※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토요문화학교 (주일학교)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가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개강 : 6월 1일(토)부터 / 매주 토요일 수업
문의 : 아네스 (010-4538-5665)

◎ 여성울뜨레야

일시 : 5월 28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초등부 주일학교 학생 등록 및 교사 모집

6세~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일학교 등록을 받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하실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 토요일 오후 3시

교리 : 매 주 토요일 오후 4시 (미사 후 교리)

문의 : 로사 교감 (010-7274-9443)

◎ 반디 주일학교 학생, 교사 모집

혼자서는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없는 반디 친구들에게 반디 주일학교는 주일마다 찾아오는 놀이터입니다. 반디 주일학교와 즐거운 추억을 쌓을 학생과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미사시간 : 매 주일 오전 10시 30분 / 소성전

문의 : 바오로비안네 교감 (010-7207-9295)

◎ 오늘은 청소년주일 2차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4. 5. 19)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3년 책정율	2023년 납부율
2,001	719 (35.9%)	678 (33.9%)	43.7%	42.3%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13일~19일)

익명	사십만원	김영숙	이십만원
곽선모	오천원	유지은	일십만원
홍동수	일십만원	김희태	오만원
김태홍	일십만원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성령 강림 대축일)

교무금.....6,870,000원
주일헌금.....5,989,700원

입당	81	봉헌	340,216,210	성체	167,156,151	파견	83
----	----	----	-------------	----	-------------	----	----



행복하 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뵈으신 백성